조선시대 관복 담홍포 담론 연구 (제1보)

박 현 정[†]

전주대학교 패션산업전공

A Study on Arguments over the Light Pink Color of Official Uniforms in the Joseon Dynasty (Part I)

Hyun-Jung Park[†]

Dept. of Fashion Business, Jeonju University

접수일(2011년 7월 4일), 수정일(2011년 8월 8일), 게재확정일(2011년 8월 23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n and why the light pink *Dan-ryoung* appeared as part of the official uniform of the Joseon Dynasty and which official uniform used the light pink color.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books written by scholars, and related laws were used as research material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by analyzing the arguments of kings and officials on light pink uniforms and laws related to official uniforms. 1. Red was the color of the king as well as the color of *Dang-sang-gwan's Gong-bok* (one of the official uniforms). 2. The colors such as *To-hong*, *Dam-hong*, *Do-hong*, *Bun-hong*, *Cheon-hong* that appeared in *Sang-bok* (among official uniforms) were relatively lighter than red. 3. *To-hong* started to be used in *Sang-bok* at the time of King Se-jong and was used at the time of King Seong-jong in *Sang-bok* because it was the preferred color. 4. In the Joseon Dynasty, safflower (the basis of red color dye) was cultivated extensively; in addition, people liked red dyeing because it was relatively easy apply; subsequently, a ban on red dyeing was continually issued. 5. Kings Se-jong and Jung-jong ordered officials to use *Do-hong* and *Bun-hong* to distinguish the red color of the king. After *Im-jin-oe-ran*, *Cheon-hong* was officially designated the color of *Sang-bok*. 6. The reasons why *Dam-hong* was used in official uniforms were twofold: the preference for red-like colors and the influence of the Confucian hierarchy to distinguish the king.

Key words: Argument, Light pink color, Official uniforms, Joseon dynasty; 담론, 담홍색, 관복, 조선

I. 서 론

영국 런던(London)에 소재한 University of London의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 방문 학자로 머물 당시 필자는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의 한국관(Korean Foundation Gallery)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채제공 초상화의 복식에 관한 논문을 미술사 분야 학술잡지 『Orientations』에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 채제공은 정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인물로 이 초상

화는 어진화사 이명기에 의해 그려진 그의 여러 개 초상화 중 하나이다. 이 그림의 경우 1789년에 그려진 70세 상으로 정조의 명으로 원본이 제작될 때 채제공이 한 본 더 그리게 하여 후손에게 보존하도록 한 것이었다(Fig. 1). 논문은 『(Ad)Dressing Joseon Portraiture: The British Museum's Portrait of Chae Je-gong』이란 제목으로 『Orientations』 2010년 November/December호에 게재되었다. 당시의 논문은 해외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한국의 조선시대 양반들의 기본 복식 구조와 관복의 종류 및 해외 학자들이 궁금해 하는 채제공의 담홍포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 후 필자는 담홍포에 대한

[†]Corresponding author

E-mail: phjphj4@hanmail.net

Fig. 1. Portrait of Chae Je-gong (British Museum).

보다 상세한 논의의 필요성을 느껴 담홍색 관복의 정착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선 왕조는 방대한 왕실 문서를 남겨 수백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당시의 생활상을 규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왕실 복식에 대해서는 자료 보존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하고 또 다수의 시대극 제작으로 인해 일반인의 관심도 높다는 이유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법전, 예서 등의 명문화된 제도 고찰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관복제도는 조선 왕실의 신분별, 품급별로 체계화된 의생활의 면모를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성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점들은 제도사 중심으로 전개된 관복제도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관복제도에 관한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제도화 과정 속에 있었던 담론들에 접근함으로써 당대 상황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이는 자료 활용과 방법론 전환의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복식사 연구에서 담홍색이 상복 혹은 시복의 색으로서 착용되었던 사실을 밝혀주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관복 담홍포에 관한 담론 분석을 통해 관

복 담홍포는 언제 등장하였으며 왜 입게 되었는가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즉 관복에서의 담홍색 출현 및 상용의 계기와 근거를 파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핵심 주제어는 담홍색이지만 논의의 시작은 홍색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이유는 관복제도에서 처음에 홍색으로 제정되었다가 담홍색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동일염료를 통해 다양한 농도의 홍색을 얻을 수 있는 전통적 염색방법과도 연관된다. ‘홍’은 복식과 직물의 붉은 색을 표현하는 대표적 색명으로서 다른 낱말과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붉은 색 계통의 복합색명에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Nam et al., 2005). 조선시대 관복 색에는 비교적 옅은 붉은 색을 뜻하는 복합색명으로 담홍색, 도홍색, 분홍색, 토홍색, 천홍색 등이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홍색은 임금의 곤룡포 대홍색에 견줄만한 진한 붉은 색명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색은 각 원문에 나타난 색명을 표기하되 홍색보다 옅은 색을 대표하는 색명으로는 영조22년 『속대전』에 규정된 당상관의 관복 담홍포 규정에 따라 ‘담홍색’을 사용하기로 한다.

연구대상은 조선시대 관복 중 단령을 착용하는 관복인 공복, 상복, 시복으로 1품에서 9품까지의 관리들이 의례복 또는 업무복으로 착용한 관복 단령 중 홍포와 담홍포 관련 자료를 총 망라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서 당시 관복 색에 관한 담론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과 개인문집, 그리고 관복제도가 기록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증보문헌비고』를 문헌자료로 사용하였다. 즉 법전에 나타난 관복제도뿐만 아니라 홍색 및 담홍색에 관해 조정에서 이루어진 분분한 담론과 사후평론을 통해 담홍포 출현 및 상용의 계기와 근거를 분석하였다.

홍색 및 담홍색 단령은 공복, 상복, 시복 세 가지 관복영역에서 나타나며 단령 색에 대한 선행연구는 관복 각론 또는 궁중행사도 복식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Moon(2004)와 E. J. Lee(2005)는 광해군 때 담홍색 단령이 상복이었다가 시복으로 명칭이 전환된 것을 포함하여 17세기까지 상복과 시복의 색상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나 공복은 함께 다루지 않았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조선 초기 상복 단

령 색에 대해 『경국대전』의 공복 색 규정이 상복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시각(Cho, 1986; Choi, 1981; Jeon, 1972; C. K. Lee, 2005; Yu, 1975)과 조선 초기 상복은 색 규정이 없었다고 보는 시각(Cho, 2000; E. J. Lee, 2005; Moon, 2004)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국대전』의 상복 단령이 공복 색 규정을 따른다고 보고 공복의 홍색 규정부터 고찰하였다. 홍색은 태조 때 처음 공복 색으로 정해져 성종 때 『경국대전』에서 공복의 최상위 색으로 규정되었다. 상복의 색은 초기에 규정이 없었지만 『경국대전』에 공복과 함께 색 구분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공복에 비해 엄격하지 않았던 상복 단령의 색은 때로는 소색과 혼동될 만큼 색이 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색이 진하여 금지되기도 하였는데 성종 때는 토홍색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어느 순간 담홍색이 보편화되었다. 한편 E. J. Lee(2005)는 조선 초기에는 상복과 시복의 용도와 명칭이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가 세종28년의례용 흑단령이 기타 색의 집무용 단령과 구분되고, 중종 때부터 용도와 명칭이 분화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흐름을 따르되 선조34년 천홍색 관복시행에 관한 논의 중 좌의정 김명원의 “관복의 제도는 법전에 실려 있다. 시복·상복이 각기 용도가 있는데”란 언급을 근거로 『경국대전』의 흑의를 시복으로 구분하고 시복이라는 명칭을 조선 초기 흑색 단령부터 소급 적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임진왜란 이후 용복에서 관복으로 복귀할 때 흑단령 관복을 먼저 시행한 후 천홍색 관복을 시행하였다. 이때까지 담홍색의 홍단령을 상복, 흑단령을 시복이라고 불렀으나 광해군 때 이르러 반대로 홍단령을 시복, 흑단령을 상복으로 부르게 된다. 영조 때 『속대전』에 시복의 신분을 구분하기 위해 당상관 담홍포와 당하관 홍포 규정이 만들어지고 다시 영조33년에 당하관의 홍포가 청록포로 바뀌어 정조 때 『대전통편』에 시복 규정이 담홍포와 청록포로 변경되며 담홍포는 당상관의 시복 색으로 제도화되었다.

본 편에서는 홍색이 공복의 색으로 규정되는 것부터 임진왜란 직후 상복으로 담홍색이 제정되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편에서 홍단령이 시복, 흑단령이 상복으로 바뀌는 것과 영조·정조 때 시복의 색 규정을 살펴볼 것이다. 각 편에서는 관복 담홍포를 주제로 한 담론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며 본 편에서는 담홍포가 관복으로 정착하기까지의 담론을 통해 담홍포 출현 및 상용의 경위가 설명될 것이다.

III. 담홍포의 제도화 과정과 그 담론

1. 공복의 색 구분체계 및 홍색의 지위

홍색은 태조 때부터 최상위 관복 색으로 제정된다. 태조1년(1392) 12월 12일 이듬해 원정부터 시행할 관복 제도를 정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품은 홍포·서대, 2품에서 판각문 이상은 홍포·여지금대, 3, 4품은 청포·흑각혁대·상홀, 5, 6품은 청포·흑각혁대·목홀, 7품 이하는 녹포요, 대와 홀은 5, 6품과 같고, 신[靴]은 모두 검은 색[皂色]이다.” 관복의 색은 품급을 구분하는 항목의 하나였으며 홍색은 홍포, 청포, 녹포의 세 단계 구분체계에서 가장 상위의 품급인 1~2품의 색이었다. 이 태조1년에 정한 관복은 구체적으로 어느 관복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홀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세종8년의 기록을 통해 공복임을 알 수 있다. 세종8년(1426) 2월 26일 “임금께 알현하거나 사은 또는 부임 전에 배사하러 뵈을 때에는 공복을 착용하며, 1품은 홍포·서각대·상홀이며, 2품 이하 정3품 이상은 홍포·여지금대·상홀이며, 종3품 이하는 청포·흑각대·상홀이며, 5, 6품은 청포·흑각대·목홀이며, 7, 8, 9품은 녹포·흑각대·목홀이다. 이상 각 품의 검은 신[黑靴]과 복두는 같다.”고 하여 태조1년 관복제도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3품이 정3품과 종3품으로 구분되어 각각 홍포와 청포로 나뉘어 홍포는 정1품에서부터 정3품까지 당상관의 공복 색이 되었다. 한편 “임금 알현 또는 사은 또는 부임 전 배사하러 뵈을 때, 왕세자에게 하례를 올릴 때, 중궁과 왕세자에게 사은할 때”라고 공복의 구체적으로 용도를 설명하고 있다.

아직 『경국대전』상에 법문화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초기의 공복 규정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제재를 가할 만큼 규제력이 있었다. 태종11년(1411) 5월 8일 의정부에서 당참하던 날 김여하가 홍포를 입어 사헌부에서 이것을 문책하였는데 이는 4품인 김여하가 정3품 이상만 입을 수 있는 홍포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성종16년(1485)에 시행된 법전 『경국대전』에는 백관의 제복, 조복, 공복, 상복제도가 완성된다. 역시 홍색은 공복의 홍포, 청포, 녹포 등 품급에 따른 색 구분체계 중 최고 상위 색으로 제정되어 태조1년과 세종8년의 공복 규정을 계승하고 있다. 1품에서 9품까지의 공복에 대한 규정만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1품 공복은 홍포를 착용한다. 2품 공복은 홍포를 착용한다. 3품 공복은 정3품은 홍포를 입고 종3품은 청포를 입는다. 4품

공복은 청포를 입는다. 5, 6품 공복은 청포를 입는다. 7, 8, 9품 공복은 녹포를 입는다.”

한편 조선시대 홍색의 지위는 백관 공복의 최상위 색을 초월하여 임금의 색이었다. 태종8년(1408) 9월 29일 태종이 세자 때 홍포를 입었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재위 후인 태종11년(1411) 6월 14일에 홍색 옷을 입었다. 세종1년(1419) 1월 12일 세종은 고명 받을 때 홍의에 옥대를 띠었으며 연산군3년(1497) 9월 11일에 대홍의는 임금의 옷이라고 하였다. 영조27년(1751) 『국조속오례의보서례』 권2 가례에 전하 시사복 곤룡포는 대홍단이나 여름용 대홍사로 만들고 오조원룡보를 부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홍색은 태조1년, 세종8년 규정에 이어 성종16년 『경국대전』에 공복의 최상위 색으로 제도화되었다. 즉 공복은 홍포, 청포, 녹포의 세 단계 색 구분체계를 가지며 홍색은 당상관 즉, 정1품부터 정3품까지의 색이었다. 한편 홍색은 관복의 최상위 색을 초월하여 임금의 복색이었다.

2. 상복 홍색의 변화

조선 초기 『경국대전』 시행 전까지 상복에는 공복과 같이 품급을 구별하는 색 구분체계가 없었다. 다만 착용되는 색에 대해 규제하거나 특정 색을 장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관복 색에 대한 기록에는 관복 구분이 없이 단령이라는 관복 포 명칭이 사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복, 상복, 시복 중 어느 관복을 가리키는지 판단이 요구되며 문맥과 정황을 통해 복두를 착용하는 공복이나 흑색 단령의 시복과 구분되는 상복 단령의 색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27년(1445) 8월 6일 “개국한 이래로 문무 조관이 모두 회색 단령을 입었는데, 뒤에 동방은 목에 속하니 회색은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금하였다.”고 하여 조선 초기 회색 단령을 착용한 것과 이를 금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회색 금지령은 일반인의 의복으로부터 관복까지 적용되었다. 즉 태조7년(1398) 6월 29일 모든 남녀에게 황색, 흰색과 함께 회색 옷을 금한 것, 태종2년(1402) 3월 9일 회색 옷을 금한 것, 태종11년(1411) 4월 26일 상례가 끝난 후 조회에 회색, 옥색을 금하고 채의를 입도록 한 규정, 태종15년(1415) 11월 29일 옥색 금했던 것을 철회하고 질게 물들여 입게 했다가 태종16년(1416) 4월 12일 옥색을 다시 금지한 규정 등을 통해 초기에 관복 단령으로 회색, 옥색 등을 착용

하였음과 오행사상에 근거하여 회색을 금지하고 진한 색을 착용하도록 한 것을 엿볼 수 있다.

때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관복 색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태종16년(1416) 7월 17일에는 여름철 관복으로 심남색, 홍색, 흑색을 사용하게 하였고 태종18년(1418) 4월 15일에는 관복에 색이 없음을 지적하며 홍단으로 관복을 만들어 주게 하였다. 세종도 태종과 같은 색을 입게 하였는데 세종1년(1419) 7월 17일 조관의 평상시 조회 복색을 남색, 홍색, 흑색으로 입게 하였다. 한편 세종6년(1424) 10월 13일에는 “토홍색과 옥색은 소복과 비슷하니, 지금부터 사신을 영접할 때와 대소 조회에는 입지 못하게 하고, 상시에도 깊게 물들인 것을 입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정에서의 ‘상시’란 상복의 개념이므로 사신 영접과 대소 조회에 착용하는 공복이나 조복뿐만 아니라 상복의 색에도 토홍색과 옥색은 금지하고 남색, 홍색, 흑색을 진하게 염색하여 입게 한 것이다. 세종11년(1429) 2월 5일에는 다시 한번 사신 영접과 대소조회에 토홍색과 옥색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관복 색 유지에 힘썼다. 세종27년(1445) 3월 3일에는 또 6명의 승지에게 압두록색 무명과 홍색 주로 단령을 만들어 입게 함으로써 남색, 홍색, 압두록색을 상복의 색으로 장려하였다. 태종과 세종 때 시행한 관복의 남색, 홍색, 압두록색, 흑색 중 남색, 홍색, 압두록색은 상복의 색으로, 흑색은 시복의 색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종은 대홍색과 홍색을 금지하고 대신 도홍색과 분홍색을 쓰도록 한다. 세종9년(1427) 2월 19일 각 관사의 이전, 외방의 향리, 공상, 천에 등에게 홍색 안감 사용을 금지한데 이어 세종28년(1446) 5월 25일에는 ‘위로는 1품으로부터 아래로 유음 자제와 부녀에 이르기까지 속옷 외에는 홍색 상의를 허락하지 말게 하고 그 외 대소남녀 의상에 모두 홍색을 금지’하면서 ‘대홍은 이미 임금의 복색이므로 속옷[裏衣]이라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의 속옷이란 겉에 입은 포 안쪽에 착용한 받침옷을 말한다. 세종31년(1449) 1월 25일 의복의 금제 조건 5개항을 발표할 때 “대홍으로 물들인 외의는 대소 조사(朝士)들이 이미 입지 못하니, 이 뒤로는 양반 부녀의 외의와 서인과 천인 남녀의 안팎 의복은 모두 대홍색을 쓰지 말고, 도홍색과 분홍색만 쓰게 하여 명년부터 이 금법을 시행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홍색 금지령은 일반복식과 관복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으나 ‘1품으로부터’와 ‘대소 조사’들에게 금한 것은 관복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즉 임금의 복색인 대홍색과 이와 유사한 홍색을 금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홍색보다 열은 색인 도홍색과 분홍색을 쓰게 한 첫 번째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단종 때는 대소신료에게 상복으로 도홍색을 입게 하였다. 단종2년(1454) 5월 2일 조계·상참·조참·회례연·사신 영접할 때와 제관이 향을 받을 때 이외에는 대소 신료에게 도홍색 옷을 입게 하였는데 『경국대전』 의장 서문에 조참, 상참, 조계에 흑의를 입는다는 규정을 참고하면 단종 때에도 시복 흑단령과 공복을 입는 의례가 구분되고 그 외 용도에 입는 상복은 도홍색으로 규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세조 때는 상복에도 신분과 품급에 따라 공복의 색 구분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세조2년(1456) 3월 28일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상소에는 상하를 분별하기 위한 복색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복 색 구분체계를 제안하며 “복색의 제정은 상하를 분별하려는 것으로 풍속을 한결같이 하는 것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우리 동방은 조관(朝冠)과 공복을 실상은 중국을 의방하였으되, 상시에는 백의 입기를 좋아하니 마음대로 여러 가지 색을 쓰는 것은 심히 속되고 촌스럽습니다. 빌건대 공복의 제도에 따라 당상관 이상을 한 색으로 하고, 6품 이상을 한 색으로 하고, 유품원·성중관·의관자제를 한 색으로 하고, 제위 군사를 한 색으로 하고, 경중과 외방의 양인·이서를 한 색으로 하고” 라고 하였다. 역시 ‘상시’란 상복의 개념이므로 당시 백색을 즐겨 입던 풍속과 마음대로 여러 가지 색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상복을 공복 규정에 준하여 당상관 이상, 6품 이상, 기타 직책으로 묶어 신분과 품급별 색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조 때 편찬 작업이 시작되어 성종 때 시행한 『경국대전』에는 조복, 제복, 공복과 함께 상복 규정이 포함되었다. 『경국대전』 예전 의장에는 관, 복, 대, 홀, 화등 구성품목별로 나누어 1품부터 9품까지의 각 관복 규정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복 부분에 품급별로 공복의 색이 규정된 반면 상복의 경우 색에 대한 언급이 없음으로 인해 상복은 색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태조1년 공복 규정에서 1, 2품에 대해서는 홀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3, 4품과 같은 상홀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상복의 색은 공복과 같기 때문에 반복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공복 규정에 따른 상복 색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세조2년 양성지의 상소 내용이

『경국대전』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경국대전』의 상복 색 규정은 공복과 같이 홍포, 청포, 녹포의 세 단계 색 구분체계를 가진다.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상복 색 규정과 함께 홍색 금지 조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소 인원에게 홍색, 회색, 백색 표의를 금지하고 서인남녀에게 홍의, 자의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예종1년(1469) 7월 9일에 “대소 인민의 홍색 표의와 홍색 속옷을 금지하되 공복, 조복, 제복과 기생, 공인의 관대 홍색은 예전대로 하게 한” 규정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조복, 제복, 그리고 공복 당상관의 홍색은 제도대로 시행하되 그 외의 홍색을 금지한 것이므로 상복 홍색은 공복과 같은 진한 붉은 색으로 입을 수 없었음을 뜻한다.

한편 성종 때는 상복으로 도홍색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를 감다갈, 압두록(혹은 초록)색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다. 성종16년(1485) 11월 21일에는 임금이 승정원에 전교하여 “내가 듣건대, 세종조에 조사(朝士)들이 입는 원령은 더러는 압두록으로 염색하고 더러는 감다갈로 염색하고 더러는 아청으로 염색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복색이 없으니 금하는 영이 있어서 그런가, 사람들이 스스로 입지 않는 것인가?”라고 묻자 승지는 “특별히 금지하는 영은 없었으나 세속에서 좋아하지 않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일 후인 성종16년(1485) 11월 24일 “대소 인원의 상착표의색(常着表衣色)에 일정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조종조에서 더러 감다갈 또는 압두록 혹은 초록색을 썼는데, 근년에 오면서 모두 세탁하기가 편하다는 것으로 다들 도홍색을 숭상하니, 조복의 문채가 너무 없다. 지금부터는 도홍색을 제외하고는 위의 여러 가지 색을 편리한대로 착용하되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때가 아니면 무릇 길복으로 통용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상착표의색’ 역시 상복의 개념으로서 도홍색을 많이 착용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며 ‘위의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 여러 가지 색은 아무런 색이 아니라 위에 제시된 감다갈, 압두록(혹은 초록)색을 말하며 이는 세종 때 입던 감다갈, 압두록, 아청색을 참고한 것이다.

또한 후대의 기록인 선조34년(1561) 6월 8일 홍색 관복에 관한 논의 기사에 의하면 영의정 이항복이 『승정원일기』를 인용하여 성종 때 상복 색으로 아청, 초록, 목홍색을 정했다고 했다. “내가 승지로 있을 때 우연히 『정원일기』를 보니, 성종 초년에 조신의 건의에 인하여 ‘조신이 복색을 마음대로 만들어 난잡하여 법

도가 없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대신들과 의논하여 제도를 정하게 하되 아청·초록·목홍을 상용하게 하고 이외에 옥색·치색·담황색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는데, 어느 때부터 일체 담홍색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다."가 그것이다.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성종이 시행했다는 목홍·아청·초록은 각각 『경국대전』 상복의 홍, 청, 녹색과 동일계통의 유사색명이므로 홍색에서 목홍색으로 색명이 변화된 것을 통해 상복 홍색이 보다 열은 목홍색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런데 광해군2년(1610) 윤 3월 2일 지경연사 박홍구는 관복 홍색의 연혁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조신의 복색은 조종조부터 일정한 규정이 없었는데, 성묘조 때에 와서 홍색으로 정했다 합니다."라고 했다. 성종 당시 홍색으로만 상복 색을 정한 기록은 없으나 후대 사람들이 '성종 때 홍색으로 정했다'고 한 것은 『승정원일기』에 '어느 때부터 일체 담홍색을 사용했다'는 담홍색 보편화 현상이 이미 성종 때 시작된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에는 상복 색으로 회색, 옥색 등을 착용하였고 조정에서는 이들 색을 금지하고 진한 색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심남색, 홍색을 사용하게 한 태종에 이어 세종도 남색, 홍색, 압두록색을 진하게 염색하도록 하였다. 한편 세종이 품관과 그 가족, 그리고 일반복식에까지 대홍색과 홍색을 금지하고 대신 도홍색과 분홍색을 쓰도록 한 것은 임금의 대홍색과 구별되게 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단종 때 상복으로 도홍색을 입게 한 것은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세조 때 양성지의 건의를 반영하여 『경국대전』에 상복은 공복의 색 규정을 따라 홍, 청, 녹색 세 단계로 구분 규정되었지만 이 상복 규정은 공복만큼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았고 대홍색, 홍색 금지령 속에 홍색에 변화가 있게 된다. 후대 사람들은 성종이 목홍, 아청, 초록색을 시행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홍색으로 정했다고도 했는데 목홍은 홍색의 색이 보다 열은 색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며 홍색으로 정했다는 것은 일체 담홍색이 되었다는 내용과 연결된다. 즉 후대 사람들에게 상복의 담홍색 보편화 현상은 이미 성종 때 시작된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홍색 선호 풍속

상복의 담홍색 형성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

선시대 홍색에 대한 임금과 일반백성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금의 생각은 홍색 금제를 통해, 일반백성의 생각은 염색을 통해 고찰해 본다.

태종은 홍색에 대한 뜻을 분명히 하였다. 태종17년(1417) 6월 27일에는 예조판서 변계량이 홍염의를 금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해 태종은 "홍색은 상에 속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금지하자고 하는가? (중략) 홍색은 황색에 비할 바 아닌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미 태조5년(1396) 6월 9일 남녀의 황색 의복을 금한 적이 있다. 태종이 말한 '상'이란 중국을 말하는 것으로 황색은 중국 황제의 색이기 때문에 금지에 동의하지만 홍색은 중국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색처럼 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즉 홍색이 우리 고유의 색이라고 말하고 있다. 태조는 당상관의 공복, 태종과 세종은 상복 색으로 홍색을 입게 한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세종은 세종28년(1446) 5월 25일 대홍색이 임금의 복색이라는 이유로 품관으로부터 일반복식에 이르기까지 겉옷 뿐 아니라 속옷에도 홍색 사용을 금지하고, 세종31년(1449) 1월 25일에는 홍색을 금지한 대신 도홍색과 분홍색을 쓰도록 한다. 그러나 홍색 사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종 즉위년(1450) 9월 21일 국상 3년 안에 대소 관원 속옷에 홍색과 자색을 금하였는데 이는 비록 국상 기간 상례에 관한 내용이지만 하나 당시 상복 단령 받침옷으로 홍색을 입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예종1년(1469) 7월 9일에 공복, 조복, 제복의 홍색을 제외한 "대소 인민의 홍색 표의와 홍색 속옷을 금지"한 것과 『경국대전』에 "대소 인민에게 홍색, 회색, 백색 표의를 금지하고 서인남녀에게 홍의, 자의를 금지"한 홍색 금지령(Son & Kim, 1982)을 통해 세종부터 성종 때까지 당상관의 공복 홍색은 유지된 반면 상복의 경우는 당상관의 상복 홍색뿐만 아니라 당하관의 받침옷으로 입는 홍색까지도 금지된 것을 알 수 있다.

연산군 대에 이르면 다시 관복 홍색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 연산군4년(1498) 6월 15일에는 당하관은 대홍의를 금한다고 하였으며, 연산군10년(1504) 5월 9일에는 "조관에게 홍색에 가까운 옷을 입지 말라."고 하였다. 어떤 관복인지가 나타나있지 않아 공복과 상복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만약 공복으로 생각한다면 연산군4년 당하관이 당상관의 색인 홍색을 입었다는 뜻으로 6년 후에는 당상관

의 공복 홍색마저도 임금의 홍색과 구별시키고자 한 것이다. 상복으로 생각한다면 당시 당상관부터 당하관까지 상복으로 홍색을 입었음과 이 역시 임금의 홍색과 구별시키고자 한 것이다. 연산군5년(1499) 7월 20일 하사 복식 품목 중에 토홍단 목면 단령이 들어있는 것도 이러한 홍색 금지령과 연관된다.

중종 때 역시 홍색을 진하게 염색하는 현상 때문에 수차례의 홍색 금지 논의가 있었으며 당상관 공복 홍색까지도 금지 규정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중종3년(1508) 3월 15일 우리나라에서 홍색을 금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색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중종3년(1508) 11월 6일에도 “지금 어의를 홍색으로 하는데 재상들도 홍색의 착용을 좋아하니,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명분에 있어서도 더욱 삼가야 할 일입니다.”라는 제안에 대해 중종은 “체모에 관련되는 일이니 1품 이상은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중종7년(1512) 2월 10일에는 지나친 홍화 진상 수량으로 인한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홍색을 금하였지만 일주일 후인 중종7년(1512) 2월 17일 다시 조복과 공복의 홍색을 원래대로 허용한다. 이 날 송일은 “조종조에도 홍색을 금하지 아니하여 속옷을 지어 입은 지 이미 오래인데, 어찌 한 가지 일 때문에 갑자기 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홍단·사라 같은 것은 빛깔 있는 것 중에서도 제일이니 진실로 금단해야 마땅하나, 다만 풍속이 검소를 숭상하면 사대부들이 반드시 사치를 부끄럽게 여겨 저절로 입으려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금하지 않아도 크게 금해지는 일입니다. 또한 공복과 조복도 홍색이나 조종 때에 제작한 뜻이 있는 것이니, 지금 와서 고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고 한다. 뒤이어 이손 등도 역시 “『대전』에는 홍색을 단지 표의만 금했고, 정묘년 수교에는 당하관의 속옷도 홍색을 금하여 그 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으니, 다시 과조를 세울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조복과 공복도 모두 홍색인데 어찌 모두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조종 때의 고례대로 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여 결국 조복과 함께 공복의 당상관 홍색을 원래대로 허용하였다. 즉 중종 때는 홍색에 대해 1품에게만 허용, 전면 금지, 다시 1품부터 정3품 당상관 공복에 허용하는 등의 금지와 허용이 반복되었다.

중종은 도홍색을 허용하기도 했는데, 중종8년(1513) 9월 5일 영평위가 친열할 때 붉은 옷 입은 것에 대해 벌하기를 청하였으나 도홍색이니 내버려 두게 하였다. 이는 세종31년의 도홍색과 분홍색을 사용하게 한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중종 후반기에 또다시 홍색을 진하게 염색하는 현상이 나타나 금지하게 된다. 중종23년(1528) 8월 18일 “지금 풍속이 퇴폐한 지 이미 오래고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여 바로잡을 수 없는데, 복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더욱 풍습화 되었기 때문에 물가가 앙등하니, 만일 상께서 검덕으로 시범하여 이런 폐풍을 바로잡으신다면 될 것입니다.”라는 제안에 대해 임금은 “이런 풍습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하지 않는다면 아래에서는 자연히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전에는 홍색에 가까운 것은 금단했었는데 지금은 금단하지 않기 때문에 의복이 지나치게 붉다. 이는 비록 세쇄한 일이지는 하지만 또한 금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정광필이 “복식이 홍색에 가까운 것은 신도 놀랐습니다. 전에는 무명 단령을 편리한 것에 따라 입었었는데, 요사이 6~7년 이래로 시신들이 다투어 홍색에 가까운 옷을 입으므로 신이 일찍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옷을 입고 상의 앞에서 가까이 모시면서 오히려 고치지 못하는가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는 옛적에 금단하던 것인데, 지금은 융복류도 다투어 짙은 홍색을 숭상하니 매우 불가하다.”고 하였다. 결국 중종38년(1543) 『대전후속록』 각종 금제(Son & Kim, 1982)에 당상관 외에는 대홍의를 입을 수 없다는 내용과 안감에는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연산군4년 금제와 마찬가지로 공복과 상복의 가능성을 모두 생각할 수 있다.

홍색 시행 및 금지 논의를 통해 살펴본 조선시대 임금의 홍색에 대한 생각은 홍색을 우리 고유의 색으로 생각하여 백관 공복과 상복의 색으로 규정하면서도 임금의 대홍색과는 구별되게 하였다. 그러나 연산군 때 당하관까지 홍색을 입기도 하고 중종 때는 복식의 사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풍속이 형성되어 공복 및 상복 단령의 홍색을 진하게 염색하여 임금의 대홍색과 같아지기도 했다.

다음으로 염색을 통해 조선시대 일반백성의 홍색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다. 홍색은 홍화와 단목 즉 소목으로 염색했으며(『상방정례』와 『탁지준절』), 토홍색은 朱土와 대자석, 묵홍색은 소목, 도홍은 홍화병(『성호사설』, 『임원경제지』), 분홍은 연지를 발치고 난 후의 종이(『규합총서』)를 사용하였다(Nam et al., 2005). 한편 『성호사설』에 도홍은 토홍이 구전되면서 바뀌었다고 하여 토홍과 도홍의 연관성을 말해주며, 또 사치가 성행하면서

토홍을 흉남 즉 홍화로 염색하기도 했다고 하여 홍화 염색이 확대되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홍화는 자초와 함께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염료 식물이었다. 세종 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전국 지방별 특산물 목록에서 홍화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평안도, 함길도 등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화 생산량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세종9년(1427) 2월 19일 홍화는 비록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지만 희귀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홍색의 또다른 염료인 소목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상황인데 당시 옷의 안감까지 홍색을 사용하니 값이 싸지 않고 물가가 오를 것을 염려하는 내용과 세종28년(1446) 5월 25일 대홍색 염색 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다투어 대홍색 염색을 선호한다는 내용은 홍색 염색의 가치와 일반백성의 홍색 선호 풍속을 말해준다.

이러한 홍색 선호 현상은 홍화 진상 수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성종22년(1491) 10월 12일 홍화를 공물로 바치는데 있어서의 폐단이 이를 말해주며 중종7년(1512) 2월 10일에는 계속 늘어나는 홍화 진상 수량을 감당하지 못한 백성들이 도망하여 유랑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백성이 유랑하는 고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임금의 옷 색과 같은 색을 입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대홍색을 금지하였다.

『연려실기술』 별집 권13 정교전고(Son & Kim, 1982) 에도 『식소록』을 인용하여 “대개 우리나라에서 홍화를 많이 심어 그것으로 홍색을 물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마음이 이를 즐겨하였던 것이다. 조종조에서 홍색, 회색, 백색을 금제의 조목에 기재하였지만 중지시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조선시대 홍화 염색을 많이 한 이유에 대해서는 홍화를 많이 재배하였고 염색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좋아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홍색 염색을 매우 잘하였던 것을 『지봉유설』 권19 복용부 채폐(Son & Kim, 1982)에는 『계림지』를 인용하여 “고려 사람은 옷감에 물을 잘 들이는데, 홍색과 자색을 더욱 잘 들인다”라고 하여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홍색 염색 수준을 인정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색과 담홍색 관련 색의 염료로는 주로 홍화, 소목, 주토 등이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홍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중종 때 홍색 진상 수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유리하는 백성이 늘고 소목은 수입에 의

존함으로 인해 값이 오르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만큼 홍색을 선호하였다.

4. 임진왜란 후 천홍색 상복 시행

전란으로 인해 관복착용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임진왜란 기간동안 임금을 비롯한 관리들은 관복 대신 용복을 착용하였다. 선조 25년(1592) 4월 14일 선조는 백관에게 용복을 입도록 명하였고 선조27년(1594) 5월 27일 선조 자신도 용복을 입고 칼을 차겠다고 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용복에서 다시 관복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먼저 흑단령을 착용하기 시작한 후 천홍색 상복이 시행된다.

먼저 흑단령 시행과정에 대해 『연려실기술』 별집 권13 정교전고(Son & Kim, 1982)에는 기해년 즉 선조32년(1599)에 비로소 흑단령 제도를 정하였다는 제목으로 선조31년(1598) 12월에 이듬해 2월 그믐을 기하여 관복을 갖추게 하고 단령은 흑색으로 하도록 명한 후 선조32년에 시행되었다는 내용을 짧게 전하고 있지만 실록에 의하면 관복 복귀 논의는 이보다 11개월 앞선 선조31년(1598) 1월에 시작되어 12월에 복귀안을 발표한 것이며 다시 약 9개월 후인 선조32년(1599) 9월에 이르러 수도 관리들을 시작으로 점차 시행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조31년(1598) 1월 27일에 신하들의 복색이 용복으로 오랑개 풍속처럼 되어 버렸다고 한탄하며, 복색은 국가의 체모에 관계 되므로 사모·흑단령·화·대를 대략이라도 조사(朝士)의 의장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선조31년(1598) 12월 19일 예조에서 “조정의 대소 관원이 모두 군복차림으로 7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상하의 구분이 없고 외관상 불품이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모두 우리나라 복색이 원래 이와 같다고 생각해 조소를 금치 못합니다. (중략) 명년 2월 그믐까지 기한하여 일제히 관디를 갖추게 함으로써 평상시의 규정대로 회복시키고 단령은 흑색으로 하도록 하여 차츰 중국 제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정식으로 관복 복귀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란을 치르며 7년 동안 착용하지 않던 관복으로의 복귀는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32년(1599) 1월 7일, 선조32년 1월 18일, 선조32년 4월 19일, 선조32년 8월 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관복 준비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시행시기를 연기하였으며

결국 선조32년(1599) 8월 26일 흑색 단령 시행일자를 경중은 9월 1일, 외관은 9월 20일, 나머지 경외 조관은 준비의 지속에 따라 착용하게 한다. 한편 선전관 이하 부장 등 입직하는 무반, 훈련도감의 천충·파충·초관 등 직책이 없으나 군직에 붙여져 상사하는 자, 비변사 낭청, 훈련원 관원, 군기시의 참서관, 삼의사 및 이서의 무리들은 모두 융복을 그대로 착용하여 활동에 편리하게 하였다. 흑단령 제도를 정했지만 모든 관리들이 관복을 갖추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편 흑단령을 시행한 후 조복이나 공복을 입어야 하는 의례에도 흑단령으로 대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행 1년 후인 선조33년(1600) 10월 21일 평시에는 정월초하루와 동지 조하 및 교묘 대례에 임금은 면복, 백관은 조복을 입어왔지만 임진왜란 후에는 조복은 물론 시복도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듬해 선조34년(1601) 3월 18일에는 “조하 때는 공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관들의 관복도 겨우 갖추는 형편이어서 복두·포·홀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시복으로 조하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라고 하여 조하 때는 백관이 공복을 입어야 하지만 관복 즉 시복도 거의 갖추는 형편이기 때문에 공복 대신 시복을 착용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을 당하여 임금을 비롯한 백관들은 7년 동안 융복을 착용하였으며 난이 끝난 후 선조32년에 다시 관복으로 복귀하면서 흑단령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 흑단령은 당시에 시복으로 불리웠으며 당시에는 공복까지 갖추기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조복이나 공복을 착용해야 하는 조하 등의 의례에 시복 흑단령이 대신 착용되기도 하였다. 이후 선조37년(1604) 10월 19일 존호 올리는 절차에 진전관이 공복을 착용한 기록이 있으나 정묘·병자호란을 치르고 난 인조16년(1638) 10월 9일 육례에 갑자기 조복, 공복을 준비하기 어려우니 대신 흑단령을 착용하게 한 기록을 통해 전란 이후 정식 관복을 갖추기 어려울 때면 시복이 공복을 대신하곤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천홍색 상복이 시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32년(1599) 9월 시복 흑단령 시행 8개월 후인 선조33년(1600) 5월 5일 “전쟁 후 중국을 모방하여 대략 상복을 준비하였으나 紅服은 아직 만들지 못하여 예의에 어긋난다.”며 흑단령 시행안이 제기된다. 단, 이 기록에서는 흑단령을 상복이라고 하여 당시 흑단령을 시복이라고 했던 다른 기

록들과 다르나 이러한 이견은 이 기록이 유일하므로 당시의 보편적 인식은 흑단령이 시복이었던 것으로 본다.

실록의 선조34년(1561) 6월 8일에는 천홍색 관복을 주제로 한 두 개의 기사가 있다. 두 기사 모두 천홍색 관복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천홍색 주장과 흑색 주장 양측의 논쟁과 임금의 결론을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기사에 나타난 여러 사람의 주장 속에는 청색과 흑색, 그리고 홍색과 천홍색이 함께 사용되어 색명에 혼돈이 있다. 청색과 흑색은 시복 색으로 홍색 계통의 상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당시 청색, 아청색, 현녹색, 청현색 등을 흑색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관례가 있었다. 또한 홍색과 천홍색은 상복 색으로 역시 흑색 계통의 시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 날의 논의에서는 혼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홍색보다 밝은 색인 천홍색을 가리킨다.

첫 번째 기사는 천홍색 반대안과 임금의 천홍색 시행안의 대립 논의를 보여준다. 예조판서 이정구는 “복색을 천홍색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중략) 천홍색은 홍색과 백색의 간색이어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임금이 신하가 같은 색임을 혐의한다면 짙은 색과 옅은 색으로 어찌 구분할 것이 있겠습니까. 중국의 예에 따라 청색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즉 천홍색은 간색이기 때문에 관복 색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신하의 복색이 임금의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면 짙은 색과 옅은 색 정도의 구별로서 충분하지 않으니 청색으로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이유로 천홍색안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특진관 이충원 역시 “국가가 거의 망하게 되었을 때 중국에서 대병을 출동시켜 구해 주었으니 은혜가 막중합니다. 관복의 제도는 일체 중국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하며 중국의 제도에 따라 흑색으로 입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금이 “만들기가 흑색은 어렵고 홍색은 쉬운가?”라고 하며 홍색 염색의 용이함을 들어 천홍색 안을 지지할 뜻을 비친다. 하지만 이원은 “할 수 없이 해야 하다면 어찌 어렵고 쉬움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흑색안을 주장한다. 임금은 다시 “습속을 바꾸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철대를 띠게 하면 반드시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전일 소모자를 쓰게 했더니 모두 수척스럽게 여겨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처럼 하였으니, 중국 옷을 입으라고 하더라도 어찌 잘 따르겠는가.”라며 습속 중시를 새로운 이유로 들고 나온다. 이전에 우리 풍속이 아닌 중국 모자를 쓰게 한

후 잘 시행되지 않았던 예를 들며 2년 전에 정한 흑단령은 중국 제도를 따른 것이며 홍색이 우리 풍속이며 풍속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로 천홍색 안을 지지한 것이다.

두 번째 기사는 천홍색 시행안과 반대안의 대립 논의 후 천홍색 시행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영종추부사 최홍원의 천홍색 관복사용안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종조로부터 홍색과 흑색의 두 가지 옷을 입어 행해 온 지가 오래되었다. 변란을 겪은 이후 중국 장수를 접대할 때 항상 흑색을 착용하였으나 이는 구제가 아니었다. 일체 구제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며 조선 왕조는 초기부터 홍색과 흑색 두 가지 관복을 입어 왔으며 사신 접대시 조복이나 공복을 입었던 옛 제도를 참고하여 중국 장수 접대시 흑색 관복은 우리의 옛 제도가 아님을 들어 원래의 풍속인 천홍색 관복사용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영의정 이항복은 천홍색 안에 대해 반대하는데 그 이유를 선조32년 흑단령 정할 때 반대한 이유부터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이항복이 청색이라고 한 것 역시 선조32년 정한 흑단령을 말함이다. 그는 “논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중국 제도를 따라 홍색을 청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신은 그때 「의관에 관한 것은 「대전」으로 국가의 법도에 관계되고 위의를 성쇠에 관계됨은 물론 문치의 정화와 귀천의 등급이 되는 것이어서 사체가 중대하니, 소홀히 강정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지금은 모든 일이 어려워 이런 일들은 할 겨를이 없다.”하였었다. 기해년(선조32년) 8월에 또 관대를 갖추고자 하므로 신은 「사체가 어려워 곤란하니 우선 물력이 조금 퍼져서 시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하자.”고 하였다. 신이 전후하여 논한 것은 전부 복색은 변경할 수 없고 관대는 갑자기 갖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경하고자 하던 당시에는 국명(國命)이 다시 새로와졌으니 정치도 기강을 개혁하여야 할 때였다. 따라서 중국을 본받아 청색으로 변경시켜 한 시대의 체모를 새롭게 해야 하므로 급한 일은 아니지만 역시 소견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금일에 이르러 겨우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또 고치면 아이들 장난 같아 체모에 관계되니, 시행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내가 승지로 있을 때 우연히 『정원일기』를 보니, 성종 초년에 조신의 건의에 인하여 「조신이 복색을 마음대로 만들어 난잡하여 법도가 없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대신들과 의논하여 제도를 정하게 하되 아청·초

록·목홍을 상용하게 하고 이외에 옥색·치색·담황색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하였는데, 어느 때부터 일체 담홍색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다. 전성기에도 물력을 참작하여 행하기 쉬운 것부터 행한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변란을 겪은 후에 갑자기 관대를 갖추고 존귀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함께 사견(絲絹)을 입고 또 홍색으로 바꾼다면, 몇 년 사이에 어렵게 고치게 되어 조정의 체면은 그만두더라도 경비를 소모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때문에 나는 전에는 홍색을 청색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고, 지금에도 결코 청색을 홍색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여긴다.”고 하였다. 인용이 다소 장황하지만 요약하자면 이항복은 2년전 기해년에 난이 끝난 직후 어려운 형편에 관복 갖추는 것을 반대했음과 그때 중국 제도를 따라 흑단령으로 정한지 겨우 2년 만에 또 다시 홍단령으로 바꾸자는 제안에도 역시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연려실기술』 별집 권13 정교전고(Son & Kim, 1982)에는 이 날 이항복의 발언에 대한 추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난리 후에 의논하는 사람들이 복색은 한결같이 중국 제도를 따르되 홍색을 고쳐 청색으로 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예문의 시복 흑단령, 상복 홍단령을 구별하기 어려우니, 시복 상복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청색으로 입는 것이 무방하다고 하였사온데”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서 이항복은 난이 끝난 직후 경황없는 상황에 시복과 상복을 구별하여 입기 어려우므로 청색 즉 흑단령 한가지지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말하는 동시에 당시 시복을 흑단령, 상복을 홍단령이라고 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항복의 천홍색 반대의견에 뒤이어 완성부원군 이현국은 홍화보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토색으로 분홍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천홍색 사용을 주장한다. “변란 이후 물력이 탕진되었는데 마침 중국 상인들이 성에 가득하여 아청이나 비단을 무척하기가 아주 쉬워서 이런 물건으로 단령을 만들어 당상관·당하관이 함께 사견을 착용하여 금법을 범하는 자가 많았는데 심지어 법관까지도 그런 사례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 지금 석복으로 인하여 다시 홍색을 착용하면 선왕의 구제를 회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조종조에서 토색으로 분홍을 만들어 착용했는데 한 번 물들이면 빛깔이 바래지지 않으니 홍화를 쓸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며 홍화 염색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토색으로

분홍색을 만들 수 있음을 제안하여 홍색 사용을 주장하였다.

좌의정 김명원 역시 흑색과 홍색이 모두 필요함을 주장하며 천홍색 관복제정에 찬성의견을 내놓는다. “관복의 제도는 법전에 실려 있다. 시복과 상복이 각기 용도가 있는데 난후에 일체 흑색만을 사용해 왔으니 이는 일시의 권제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홍색을 쓰면 아이들 장난 같기는 하나 조종조의 구제가 분명해진다.”라며 시복 흑단령과 상복 홍단령이 모두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하고 있다. 우의정 윤승훈 역시 청색만 시행하는 것은 중국식을 잘못 따르는 것이라며 홍색 시행에 찬성하며 시행일자를 제시한다. “백관의 복색은, 처음에는 일정한 제도가 없었으나 오로지 홍색을 사용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또 중국에서는 청색과 홍색을 겸용하면서 경사를 만나면 반드시 홍의를 착용한다. 우리나라는 한 번 청색을 착용한 후부터는 홍의는 아주 폐하고 사용하지 않으니, 이는 중국 제도를 따르려고 하면서도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중략) 홍색으로 해야 한다는 의논이 이미 발단되었으니 끝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번 석복하는 때를 당하여 홍색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임금은 홍색 사용안을 지지하여 다음과 같이 전교한다. “복색은 구제가 있으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다. 지난 해에 유사가 아뢰어 흑색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제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일시의 권도에서 나온 것이니, 이제 의논에 따라 다시 구제를 회복해야 한다. 다만 내가 들전대 전에 중국 사신이 ‘그대 나라는 군신의 복색이 구별이 없으니 무슨 이유인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조신의 홍색 옷을 비난한 것이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즉 흑색으로 정한 것은 일시적인 제도였으니 옛 제도에 따라 홍색 관복을 다시 시행하되 군신의 구별이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두 번째 기사 말미에는 천홍색 시행을 주장하는 입장을 요약하여, 최홍원은 “관복의 제도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중국 사신의 한마디 때문에 경솔히 고치기는 어려울 듯하다.”하였고, 이현국은 “토홍색을 쓰면 선왕조에서 검소함을 숭상하던 뜻에 가까울 듯하다. 중국 사신이 이른바 ‘복색에 구별이 없다.’는 말은 방해를 줄 것이 없을까 한다.”하였고 김명원과 윤승훈은 “군신간의 복색이 구분이 없는 것은 과연 미안하니 조신들은 항상 천홍색을 입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고 한 것으로 정리한 후 임금은 의논대로 하

라고 전교하였음을 기록하였다. 예조에서는 또 “대신의 뜻은 이번 석복하는 기회에 천홍색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으니, 상복의 단령은 천홍색을 사용하되 이달 27일 상제 후에 번복을 시작으로 착용하게 하고 외방은 원근이 같지 않으니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거행하게 하소서. 대개 우리나라는 처음에 제도를 정하지만 나중에는 금법을 범하게 되는데, 이번 천홍색으로 한 제도는 군신 간의 복색을 구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니, 홍색이 조금 짙은 자는 법사로 하여금 일체 규감하여 폐단이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유쾌하다고 전교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조34년(1561) 6월 27일 의인왕후 상일에 백관이 소복을 벗고 천홍색을 입음으로써 임진왜란 이후 공식적으로 천홍색 관복이 시작된 것이다.

이 날의 논의는 광해군6년(1614)에 편찬된 『지봉유설』에 요약되어 있다. 임진왜란 후 흑단령, 홍단령 시행에 관한 기록은 실록뿐만 아니라 『지봉유설』, 『연려실기술』, 『증보문헌비고』 등에 실려 있지만 실록과 비교할 때 기록 연대가 앞설 뿐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봉유설』이다. 『지봉유설』 권19 복용부 조장(Son & Kim, 1982)에 “우리나라에서는 양관의 복을 조복이라고 하고, 흑단령을 시복이라 하며, 홍단령을 상복이라 하고, 철릭을 용복이라고 한다. 나라의 풍속에 전부터의 관리는 모두 홍단령을 입었다. 중국 사람들은 임금과 신하가 똑같은 색의 의복을 입는 것을 잘못으로 여긴다. 임진왜란 뒤에는 난리 속이고 창졸간이므로 사대부들은 모두 철릭을 입었다. 기해년에 이르러 비로소 중국을 모방해서 흑단령을 입었다. 신축년에 유근이 예조판서가 되어 위에 건의해서 임진왜란 이전과 같이 홍색으로 고쳐 입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었다. 대체로 사람의 마음이란 옛날을 따르기를 즐겨하기 때문이다.” 즉 임진왜란 이전부터 관리들이 모두 홍단령을 입었던 풍속이 있었으며 임진왜란 뒤에 중국을 모방해 흑단령을 입었고, 신축년 즉 선조34년에 천홍색 단령을 입게 했다는 내용과 함께 흑단령이 시복, 홍단령이 상복이라는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다.

선조34년 6월의 천홍색 관련 논의는 중국 제도에 따라 흑단령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과 홍색이 우리의 옛 풍속이니 홍색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었으며 임금은 우리 풍속을 존중하는 입장에 동의하되 임금의 홍색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 천홍색 관복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이 끝난 후 용복을

벗으며 흑단령을 시행했지만 2년 후인 선조34년(1501)의 인왕후 상일을 기하여 백관이 소복을 벗게 되면서 천홍색 단령을 입음으로써 임진왜란 이후 공식적으로 천홍색 관복이 시작되었다. 당시 흑단령은 시복, 천홍색 관복은 상복에 해당하였다.

IV. 결 론

조선 관복 담홍포 출현 및 상용의 계기와 근거를 밝히기 위해 공복의 색 구분체계 및 홍색의 지위, 상복 홍색의 변화, 홍색 선호 풍속, 임진왜란 후 천홍색 상복 시행이라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홍색은 태조1년, 세종8년 공복의 최상위 색으로 규정된데 이어 성종 때 『경국대전』에 법령으로 제도화되었다. 즉 공복은 홍포, 청포, 녹색의 3단계 색 구분체계를 가지며 홍색은 당상관 즉, 정1품부터 정3품까지의 공복 색이었다. 한편 홍색은 관복의 최상위 색을 초월하여 임금의 색이었다.

세조 때 양성지의 건의가 반영되어 『경국대전』에 상복의 색을 공복 색에 따라 홍색, 청색, 녹색으로 규정했지만 당상관 상복의 홍색은 공복만큼 유지되지 못한다. 비록 태종 때 상복 색으로 남색과 함께 홍색을 장려했고 세종 역시 남색, 압두록색과 함께 홍색을 사용하게 했지만, 반면 임금의 대홍색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 대홍색과 홍색을 금지하고 도홍색과 분홍색을 입도록 하였다. 예종1년(1469) 7월 9일 공복, 조복, 제복의 홍색은 예전대로 하면서 대소인민의 홍색 표의, 홍색 속옷을 금지하고, 『경국대전』에도 대소인민의 홍색 표의를 금지하였으며, 연산군 때 조정 관리의 공복 또는 상복에 홍색에 가까운 색을 입지 못하게 한 것, 그리고 하사 복식 품목 중에 토홍단 목면 단령이 들어있던 것 등은 모두 『경국대전』 당상관 상복 홍색 규정에도 불구하고 홍색이 진한 붉은 색으로 착용되지 못하도록 한 전후의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후대의 기록에 나타난 색명의 변화는 상복 홍색의 색이 담홍색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선조34년(1561) 기록에 『승정원일기』를 인용하여 성종 때 시행했다고 한 아청, 초록, 묵홍색은 『경국대전』의 홍, 청, 녹색과 동일계통의 유사색명이다. 즉 『경국대전』 당상관 상복의 홍색이 후대 묵홍색으로 기록된 것은 비록 법률 제도 상에는 홍색으로 규정되었지만 임금의 대홍색과 구별되기

위해 색상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조선시대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홍색을 복색으로 선호했다. 홍색은 홍화나 소목을 염료로 사용하였으며 비록 홍화의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소목은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값이 오르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홍화는 염색방법이 쉽고 세탁이 용이하다는 편리성 때문에 선호하는 염색방법이었다. 한편 조선시대 임금은 홍색을 우리 고유의 색으로 생각하여 백관 공복과 상복의 색으로 규정하면서도 임금의 대홍색과는 구별되게 하고자 금지령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군 때 당하관까지 홍색을 입기도 하고 종종 때는 복식의 사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풍속이 형성되어 공복 및 상복 단령의 홍색을 진하게 염색하여 임금의 대홍색과 같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용복을 벗으며 흑단령을 착용했지만 2년 후인 선조34년(1501) 천홍색 관복 논의 결과의 인왕후 상일을 기하여 소복을 벗고 천홍색 단령을 시행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천홍색 관복이 시작되었다. 이 천홍색 관복은 당시 상복에 해당하며 흑단령은 시복으로서 임진왜란 후 복귀되지 않은 공복의 용도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선조34년의 천홍색 관복 논의는 중국 제도에 따라 흑단령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과 홍색이 우리의 옛 풍속이므로 홍색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었으며 결국 우리 풍속을 존중하되 임금의 홍색과 구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천홍색 관복을 시행하게 된다.

천홍색 상복은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상용되었던 담홍색 풍속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선조34년(1561) 천홍색 관복시행에 관한 논의에서 영의정 이항복이 “성종 때 아청·초록·묵홍을 상용하게 했지만 어느 때부터 일체 담홍색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영중추부사 최홍원의 “홍색과 흑색의 두 가지 옷을 입어 온 지가 오래되었다.”고 한 것, 우의정 윤승훈이 “오로지 홍색을 사용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한 것, 『지봉유설』에서 “나라의 풍속에 전부터의 관리는 모두 홍단령을 입었다.”고 한 것 등은 모두 홍색 계통의 단령 착용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설명이다. 또한 “선조34년부터 임진왜란 이전과 같이 홍단령으로 고쳐 입게 해서”라고 한 것을 통해 임진왜란 이전에 홍색 계통 단령이 상복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광해군2년의 ‘성종 때 홍색으로 정했다’는 또 다른 기록은 ‘어느 때부터 일체

사용하게 된 담홍색'과 연결되어 후대 사람들에게 상복의 담홍색 보편화 현상은 이미 성종 때 시작된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색 규정, 토홍색 또는 진한 홍색 선호 현상과 금지령, 임진왜란이 끝난 뒤 천홍색 상복이 시행까지의 일련의 현상과 이를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관복 담홍포가 출현하고 또 상용하게 되기까지는 크게 홍색 선호 풍속과 유교적 신분 구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작용하였음이 나타났다.

담홍포 담론에 대한 다음 편에서는 상복과 시복의 색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것과 영조·정조 때 시복의 색 구분체계 정립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담홍포 담론을 종합함으로써 조선시대 관복에 나타난 통치 철학과 공복, 상복, 시복의 상호 관련성도 설명하게 될 것이다.

References

- Cho, H. S. (2000). A study on the costumes of 18th century through 「Bongsado」. *Journal of Asia Culture*, 4, 79-107.
- Cho, O. S. (1986). *A study on Danryeo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Choi, B. S. (1981). *The colors of the traditional Korean official uniforms; Especially on the kinds of red col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7). *한국의 초상화: 역사 속의 인물과 조우하다* [Korean portrait painting; Encountering with people in history]. Seoul: Nulwa.
- Jeon, Y. S. (1972). *A study on the color of Korean cloth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C. K. (2005). *Study on traditional Danryeong and modern Danryeo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Lee, E. J. (2005). Development process of Sibok and Sangbok for officer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5(6), 38-50.
- Moon, K. H. (2004). *A study on dress codes and actual Sam-ple of 「Dan-ryung」 in the time of Joseon dynas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 Nam, Y. J., Kim, S. Y., & Park, S. S. (2005). *The meaning of red-series color names in the clothing of Joseon dynasty period*.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Son, K. J., & Kim, Y. S. (1982). *한국복식사자료선집 조선편 III* [The selected sources of Korean historical costume: The Joseon dynasty III]. Seoul: Kyomunsa.
-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ranslated into the modern Korean. (1995).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Retrieved January 16 to February 28, 2010, from <http://silok.history.go.kr>
- Yu, H. G. (1975). *한국복식사연구* [Study on Korean clothing and textiles histor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